

적폐 '카르텔' 붕괴

방문진 김원배 이사 사의 표명

긴급 공지를 위해 무대 앞으로 나서는 김연국 노조위원장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조합원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한동안 상암 사옥을 뒤덮었다. 40일 넘게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적폐의 성체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언론 적폐, 균열이 시작되다

김원배 이사는 어제 방문진 사무처와 구 여권 이사들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늘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이후 지난달 8일 사퇴한 유의선 이사에 이어 구 여권 이사 가운데 두 번째로 방문진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목원대 총장을 지낸 김 이사는 정수장학회 출신의 친박 인사로 2013년 방문진 이사에 선임된 이후 5년째 자리를 지켜왔다. MBC가 정권의 홍보 방송으로 전락하는 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 김 이사마저 최근엔 다른 구 여권 이사들과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김 이사가 소위원장을 맡아 작성된 ‘2016 MBC 경영평가보고서’는 보도 시사 부문의 공정성 훼손을 지적했다. 이 이유로 구 여권 이사들에 의해 사실상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 책임자였던 김 이사는 다른 구 여권 이사들로부터 편찬을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1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 이사는 “방통위의 검사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다른 구 여권 이사들과 달리 “어떻게든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MBC 안팎의 거센 저항과 압박에, 공고해 보이던 적폐 세력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8년만의 구도 재편... 김장겸 해임도 가능

이제 방문진은 구 여권 이사 4명, 구 야권 이사 3명의 구도로 바뀌게 됐다.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경우 방문진 이사진 구도는 4대 5로 역전되게 된다. 지난 2009년 김우룡 이사장을 포함해 당시 보

수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이사회가 선임된 이후, 여야의 인적 구성비가 뒤바뀌는 건 무려 8년만이다. 보도 공정성을 말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김장겸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결을 통한 해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퇴 여부 상관없이 끝까지 싸울 것”

하지만 김 이사의 사퇴가 언론 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의 중착점은 아니다. 김연국 노조위원장은 “김 이사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고영주 이사장이 반드시 해임되어야 한다는 게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MBC를 정권의 품에 안긴 ‘공범자’들이 제대로 된 쟁점을 치르지 않는 한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그것은 이 싸움이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의 반영이자 먼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미 적폐의 붕괴는 시작됐다. MBC 구성원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의 힘으로 부끄러운 부역의 잔재를 쓸어내고 그 위에 공영방송의 가치를 다시 세울 것이다.



버티는 고영주, 사퇴만이 답이다

김원배 이사가 사퇴했지만 아직 방문진 적폐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MBC 관리·감독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경영진과 함께 MBC 몰락을 앞장서 이끌었던 적폐 이사들은 뻔뻔스럽게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고영주 이사장은 하루도 더 남겨 놓아서 안 되는 적폐 중의 적폐다.

MBC는 그저 ‘먹잇감’인가

최근 노동조합이 공개한 고영주 이사장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한다. 신원도 불확실한 건설 브로커에게 MBC 여의도 부지를 통째로 떠넘기려 한 것은 그의 월권과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업무용으로 쓰여야 할 MBC 골프회원권으로

‘자신이 모시는 사람들’과 골프를 쳤으면 서도 ‘회원권이 많아 없어지냐’며 천박한 도덕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MBC 자회사 사장으로 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차량 제공은 물론 수십 만 원 상당의 선물까지 거리낌 없이 받아 챙겼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비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말 그대로 ‘비리 끝판왕’이다. 그에게 MBC는 단지 챙길 것 많은 먹잇감에 불과했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더 큰 문제는 그에게 아무런 반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MBC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지 오래다.

MBC 몰락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방통위의 정당한 검사·감독권마저 무시하고 뭉개는데 앞장서고 있다. 오로지 김장겸 체제를 연명시키려는 속보이는 무리수일 뿐이다. 속속 드러나는 월권과 비리에 대해서도 앞뒤 안 맞는 해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접대’를 당연시하면서 오히려 ‘김영란법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가 한때 법조인이었다는 사실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단언컨대,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그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영주 해임’이 MBC 정상화의 첫 단추

그가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MBC의 진정한 적폐 청산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적폐 우두머리’인 고영주 이사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MBC의 몰락은 무능하고 편파적인 경영진과,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방문진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그 중심엔 고영주 이사장이 있었다. 그를 해임하는 것은 MBC 정상화의 첫 단추이다.

“부산MBC 사장이 골프 접대 결과였다” 부산지부, 허연회 사장 퇴진 투쟁 선언

‘고영주 골프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허연회 부산MBC 사장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부산지부가 강력한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근교 최고급 골프장에서 당시 iMBC사장이던 허연회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지 하루만이다. 허 사장은 골프 비용뿐만 아니라, 관용 차량과 고가의 선물 세트까지 제공해 김영란법을 정면 위반했다. 골프 접대 뒤엔 부산MBC 사장으로 영전했다.

부산지부는 어제(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MBC 사장 자리가, 국정 농단과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인사들에 대한 골프 접대의 결과물이나”고 반문하며 “부산MBC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언론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김장겸의 아바타이자 골프접대 낙하산인 허연회에 대해 강력한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퇴진 투쟁과 별개로 MBC본부는 허 사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총과업

이후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 열기가 부산MBC로까지 번지면서, 퇴진 대상 지역사 사장은 이진숙(대전), 송재우(춘천), 심원택(여수), 김현중(목포), 김철진(원주), 김일곤(경남)에 이어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궁지 몰린 김재철...검찰 소환 임박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김재철 전 사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엔 전영배 MBC C&I 사장을, 13일에는 윤길용 MBC NET 사장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김재철 체제의 부역자들로 국정원의 MBC 파괴 공작을 충실히 이행한 인물들이다. 이제 방송 장악 공작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남은 건 김재철에 대한 소환조사다.



어진 문건이었던 만큼 어찌 보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조만간 김재철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김재철이 전영배나 윤길용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문건 내용 김재철에 직접 전달”

전영배와 윤길용은 검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국정원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와 이들의 부역 행위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김재철이다.

지난 16일 언론들은 ‘국정원 직원이 김재

철을 만나 국정원 문건 내용을 전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BC를 출입한 국정원 담당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부 비판적인 제작진과 연예인 퇴출 방안 등을 김재철에게 구두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국정원의 방송 장악 음모는 문건의 실체로 확인됐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다름 아닌 MBC 사장에게까지 직접 전달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김재철의 사장 취임을 계기로 ‘MBC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만들

안광한·김장겸까지 수사 확대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가 김재철에 멈춰서는 안 된다. 안광한, 김장겸 사장 시절에도 국정원의 시나리오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MBC에서 작동되고 실행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김장겸은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치며 MBC 보도국을 국정원 문건대로 망가트린 장본인이다. 검찰의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된다면 이들은 필연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사건, 증거 인멸 우려

반면 최근 제기된 고소·고발 건에 대한 수사는 더딘 모양새다. MBC 영상기자회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사건만 해도, 고소장을 제출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된 8월 9일 이후 보름이 더 지나 서울 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또 검사의 지휘 아래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으로 옮겨졌다. 문제는 그 이후다. 지금까지 영상기자회장 등 피해자 측 참고인과 최초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권모씨의 출석조사가 각각 두 차례 이뤄진 게 전부다.

문건 작성자 ‘유포’ 혐의 부인

그마저도 강용석 변호사를 데리고 서부지청에 나타난 권 씨는 해당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유포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폭로 직후 SNS를 통해 ‘본인이 썼고 다른 2명과 공유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실상 작성과 유포 모두 ‘실토’했지만, 그 새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권 씨와 문건을 공유한 것으로 지목된 2명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건이 밝혀졌고 작성자가 자기 입으로 시인했다.



블랙리스트 그대로 카메라 기자들이 보도국 밖으로 쫓겨났다. 꾸물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는 사안이다.

김장겸 사장과 조창호 시사제작국장 등이 벌인 ‘<PD수첩> 죽이기’에 대한 제작진의 고소 건도 마찬가지다. 노동 관련 아이템에 대한 극도의 편견을 드러내면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자율성을 유린한 이 사건도 현재 서부지검으로 넘겨졌지만 아직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사장 면접 당시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적폐 이사들은 노조원들을 ‘잔여 인력’ ‘유휴 인력’으로 칭하며 업무에서 배제할 방

법을 물었다. 국정원 공작에 손발을 맞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이 결정적 증거들은 고스란히 속 기록에 남았다. 하지만 이 사건도 현재 서부지검에 옮겨져 별 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만,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고영주는 물론, 김장겸 등 한 줌의 경영진들은 머뭇머뭇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건 작성자·공유자 같은 부서 발령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다. 그동안 우리는 봐 왔다. 이어진 폭로에 대해 적폐 세력들은 항상 ‘증거 인멸’과 ‘말 바꾸기’로 대응해왔다. 사측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는커녕, 최초 작성자와 공유자를 같은 부서에서 일하도록 발령을 냈다. 대놓고 증거를 없애라는 조치나 다름이 없다. 수년간 공영방송 MBC를 망친 부역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이야말로 청산의 시작이자, 완성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돼야 할 적폐의 증거들이 검찰의 더딘 수사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엄정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오는 25일 MBC파업 콘서트 ‘필참사수!’

블랙리스트 가수 · 방송인 대거 출연

조합원이라면 꼭 참석해야 할 행사가 다가온다. 가족·친구들에게 미리 일정을 비워 놓으라고 일러두기 바란다. 그래도 될 만한, 화려한 라인업도 갖췄다. 오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MBC 파업 콘서트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가 열린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문화제엔, 특히 그동안 국정원 블랙리스트와 MBC사측의 압박에 방송과 라디오에서 사라졌던 가수와 방송인, 아나운서들이 대거 출연해 MBC 파업을 응원한다.

**DJ DOC · 김미화 · 배철수 ·
전인권 등 막강 라인업**

먼저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하늘의 DJ DOC가 문화제 분위기를 흥겹게 돋우고, MBC라디오에서 강제 퇴출됐던 방송인 김미화 씨와 시사 풍자의 1인자 배철수 씨가 조합원들

과 시민들에게 MBC 사태에 대한 촌철살인의 입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기하와 얼굴들’, ‘밴드 혁오’, ‘바버렛츠’와 같은 소신 있는 젊은 가수들은 물론, 지난해 촛불집회부터 최근 ‘돌마고 불금파티’까지 저항의 현장을 지켜온 레전드 전인권 밴드도 무대에 오른다.

**회사 떠난
동료 아나운서들과의 해후**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란 문화제 주제에 어울릴 또 다른 출연자들도 있다. MBC 사측에 찍히고 배제돼 회사를 떠나야만했던 아나운서들이다. 오랜만에 보는 동료 아나운서들, 문화제 현장에서 직접 해후하고 지난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깜짝 인물들도 현장을 찾거나 영상을 통해 MBC 총파업을 응원한다고 하니 기대하시라.

MBC 파업 CONCERT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10월25일(수)
오후7시
서울시청광장

전인권밴드
DJ DOC
장기하와 얼굴들
밴드 혁오
바버렛츠
김미화
김어준
배철수

만나면 좋은친구
MBC 문화방송!

**따끔한 질타부터
총파업 응원까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콘서트를 준비하는 조합 관계자는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열정은 물론, 시민들에게 반성과 사과의 의미, MBC를 향한 따끔한 꾸짖음부터 격려, 응원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공연에 담아낼 예정”이라며 “가족, 친구와 함께 나와서 가을밤 나들이를 즐기며, MBC와 함께 해 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MBC파업 콘서트는 당연히 별도의 입장권이 없으며, 서울시청 광장에 가기만 하면 무료로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다. MBC본부 18개 지부 조합원 2천여 명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필참사수!’ 문화제가 열리는 서울시청 광장은 1만 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

